

K175
제 4 대 여학생협의회
선거를 위한
정책자료집

하늘의 절반



기호 1 번 전현진 · 이은미 선거운동본부

—자료집 목차—

· 자료집을 발간하며

1. 학생회의 강화는 여학생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2. 21세기 평등의 세상

3. 여성해방 · 민중해방의 하늘을 열자

자료집을 발간하며

I - 1

가을이 지고 있습니다. 황혼이 지는 태양마냥 일세 떨어진 나무의 앙상함과 인적없는 대운동장의 황량함이 조화를 이루는 시점. 나름대로의 멋을 느껴보기로 하는 계절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몰아치면 두꺼운 옷을 꺼내입고 겨울앞에 섭니다.

I - 2

선거와 정장. 3년간 남의 일이었던 선거가 나의 일로 변하고.

I - 3

루머에 시달리는 아픔을 겪었을 때, '유명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I - 4

도와주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물과 심의 양면으로. 감사할.

I - 5

이 모든 것을 자랑스러워 하고 싶습니다.

★ “문제제기는 옳다. 대안을 밝히라”는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름대로의 소박한 대안을 담고자 합니다.

II - 1

먼저 여학생문제를 풀어나가는 조직체계를 논합니다. 학생회의 강화는 여학생문제의 해결과 어떠한 관계인가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의 방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II - 2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전진. 하나하나의 작은 실천을 다루고자 합니다. 문화종토의 혁신과 여학생복지가 주요 관심품목으로 자리잡습니다.

II - 3

현실의 낯은 벽을 털고 일어서는 우리의 투쟁을 담았습니다. 여성해방은 민중해방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한 주장이 될 것입니다.

II - 4

그리고.

끝과 새로운 시작이 옵니다.

1. 학생회의 강화는 여학생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민중민주적 학생회는 여학우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여학우들의 문제를 자신의 사업내용으로 포괄해 내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학우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남학우들도 동참시켜내는 것이 바로 현재의 사업내용이 될 것입니다.

친목의 토대 위에서 자각의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대안입니다.

여학생문제도 학생회에서!

①각과의 여학생모임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제는 자주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90년에 들어서면서 서강대에는 많은 여학생모임이 건설되었습니다. 여학생회가 건설된 곳도 있고 대개의 과에서는 여성학회나 학년별 계모임 등이 건설되어 나름대로의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임들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학생들의 단결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학생모임이 자신의 내용을 갖고 활동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1학년: 1학년은 일반적으로 이것이다라고 규정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내용을 확보한다기 보다는, 대학에 들어와서 겪게 된 여러가지 사건들(여성차별의 사례들도 많을 것입니다)을 정리해 낼 수 있는 내용으

로, 여러 부분별로(문화, 예술, 언론, 교육, 사회문제 등으로 다양화) 논의하고 실천을 모색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2, 3학년:이제는 사회진출의 문제가 4학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이라는 커다란 벽은 2, 3학년부터 학점, 전공 과목, 취직을 위한 공부 등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 3학년의 여학생모임은 이러한 고민을 논의하고 자신의 지향, 학문을 찾아나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4학년:특히 요즘에 와서는 산업구조 재조정의 가속화로 취업기회의 불평등과 고학력여성 실업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4학년 여학생모임에서는 사회진출 소모임등을 진출분야별로 건설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세워나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학년별 모임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사회진출 소모임 등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모임을 현재 여학생회가 있는 종교학과부터 시작하여 가능한 모든 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학번별 모임의 내실화는 학번운영위의 강화를 가져올 것이고 학번 운영위가 각 학번의 특수한 내용을 자신의 사업으로 잡아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건설될 전체학생 대표자회의와 더불어 학생회가 실질적인 학생대중의 대표체가 되는 기본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학번여학생모임의 내실화

⇒학번운영위의 강화

⇒학생회의 강화로!!

②여성학회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대개 학회는 '진보적 학문을 매개로 하는 생활공동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학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성문제를 보다 깊게 탐구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간입니다.

지난 동안의 여성학회의 활동을 살펴 보면, 많은 의욕으로 건설되었으나 자신의 활동방식과 내용을 찾아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활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단 한가지입니다. 각 학회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각 학회가 요구하는 내용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

여성학회연합 추진위원회의 건설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단순히 학회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 학회의 경험을 공유하고 연구분과를 설치하여 커리큘럼의 생산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학회연합은 학회교사모임의 형식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학년 재생산의 수준도 되지 않는 학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는 공통 커리큘럼의 제작과 교사교양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③과·단대 학생회에서 여성문제를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간 여학우들의 학생회 활동참여는 남학우들에 비해 저조하였고, 학생회도 여성문제를 담아내는 사업을 벌여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자각한 여학우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학생회에 관철시키려 해도 그 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과와 단대학생회에 여학생부가 건설되어야 합니다.

여학생부는 학번학생회나 과·단대학생회의 골간체계에서 수련하기 힘든 특수한 부분들(여학생문제)을 수련하여 학생회의 정책으로 생산해내고 학생회의 정책을 여학생들에게 확산시켜내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위 학생회내 여학생모임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학생부의 건설은 각 단위 학생회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집니다.

여학생부의 건설! 여학생모임의 지원!

④고감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항상적이고 집요한 여론조사는 여학생협의회가 간부들만의 사업이 아니라 학우대중에 근거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학생회 사업이나 여협 사업을 보면 항상적인 여론조사 구조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학생협의회는 1달에 1회 이상의 설문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학우들의 요구를 항상 파악하고 정책의 기초에 반영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협산하에는 청지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여협의 신문은 6천서장에 투고란을 개방하고 여학생협의회 사업을 공개하여 여협의 사업이 대중적으로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한달에 1회이상 실시!
여협 신문의 혁신!

⑤각종의 간담회를 정제화시켜 내겠습니다.

첫째, 남학우와 여학우들이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여학생문제가 여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90년의 여학생간담회에서 주로 주제가 되었던 것은 ‘여성흡연’이나 ‘연애’, ‘취업문제’ 등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개 남학생들의 의식변화와 결부되어야 풀릴 수 있는 문제이거나 근본적인 부분의 변혁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같이 풀어가기 위하여, 그리고 같이 투쟁하기 위해서라도 남학우들과의 의식공유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은 수업시간에 공공연히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남학생들은 2.3만 되어도 취업이 되지만 여학생들은 3.0이 되어도 취업이 잘 안되니 시집갈 생각이나 하라.” 이는 남학생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고학력 취업난은 학생 전체의 문제이고 여학생취업난은 이 중 일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학생과 남학생은 같이 문제를 풀어나

가야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둘째로 여협과 학생회 간부와의 간담회를 자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학생회 간부들로 하여금 여학생문제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여협은 학생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로 여학생모임이나 여성학회와 여협과의 간담회를 정제화 하겠습니다.



⑥취업대책위의 건설

여대생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고통받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대생 취업차별' 문제라고 합니다. 요즈음에는 신입생이 들어오자마자 던지는 질문이 "이과는 취직이 잘되나요?"라고 하니 고학년이 어떻게든 불을 보듯 합니다. 졸업준비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나 앨범만들고 기념품 제작하는 것이 일의 전부입니다.

취업대책위원회의 건설은 각 과별 여학생모임의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협 취업대책위원회의 건설은 각 과의 4학년 여학생모임의 활성화—이것이 실질적인 졸업준비위원회가 될 것입니다—에 필요한 내용과 자료, 통계,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사회진출에 대한 강연회, 졸업한 선배님과의 간담회 등의 사업을 펼쳐서 학년별 여학생모임의 내용을 담아내고 사회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대책위원회의 건설

⇒고학년 여학생모임의 활성화!

⇒학생회의 사회진출사업 활성화!

⑦탁아분과의 활성화

탁아사업의 활성화는 두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중연대의 일환으로—민중여성의 고통은 여학생의 고통과 정도가 다를 뿐, 같은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요구되는 것과, 두번째는 학년별 여학생모임의 실천구조의 확보라는 면으로 특히 1학년 여학생들은 탁아사업에 참여하여 많은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서강에는 이미 탁아분과가 있습니다. 탁아분과는 서초동 꽃동네의 놀이방에 가서 탁아활동을 벌여 왔으나 요즈음 들어서는 약간 위축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탁아사업은 개인별 참여나 씨름 활동으로의 전화가 아니라 학년별 여학생모임의 활동으로 자리잡혀야 합니다. 여협의 탁아분과는 이러한 활동을 주관하고 활성화시키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탁아분과의 활성화!

2. 21세기 새로운 평등의 땅.

—대학내 여성문화, 대학의 살.
여학우 복지를 위하여.

‘여성해방’이라는 단어는 아직도 너무나 낯설고, 무엇인가 거리낌을 갖고 바라보게 하는 단어입니다. 대학내에 여성문화를 건설하자느니 하는 말도 다른 세계의 일로 들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려 아무런 감정을 불러 일으키지도 않는—이 다시 되돌아 보여지는 날, 이 단어는 우리 가슴에 소중한 물질이 되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소중한 실천.

우리는 “잘살아보세”에 관점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 잘살려고 하는가?”

작은 실천을 큰 실천의 조류에 부합시키려 합니다.

이것이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①여성 문화제!

대중문화는 성을 상품화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는 폭력을 상품화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문화는 대학 내에도 깊숙하게 뿌리박고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 절망을 업고 빠져드는 허무주의에 우리의 정신은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다급한 외침으로 여성문화제를 제안합니다.

여성문화제는 대동제때나 가을의 단대·기구제 중에 한 번으로 하고, 여성영화제, 문학제, 노래마당 등 다양한 부문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민중(여성) 문화 건설의 토대를 담기 위한 서강의 첫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날(11월3일)에 기획될 학생문화제(제안)에서도 여성문화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여학우들에게는 단절의 토대와 다양한 관심과 요구의 수렴의 계기로, 남학우들에게는 여학생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으로서 자리매김 되어질 것입니다.

서강의성문화제⇒서울제대의학생문화제로!

② 학교 주변의 퇴폐문화 추방!

서강대학교는 신촌로터리에 접해 있습니다. 신촌로터리는 유흥업소의 천국입니다. 한집 건너 술집, 카페, 당구장, 여관, 룸살롱 등등. 심지어는 여관에서의 포르노 비디오 상영.

“같은 신촌이라도 그래도 우리 학교 주변은 덜하지 않느냐”고 항변하실 학우가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호프집과 카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학우들은 덜하지만 남학우들은 동문회에서 여관까지 가서 명작(?) 비디오 한 편 본 기억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해환경은 분명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순진한 남학우들을 꼬셔서 술자리에서 음담패설이나 하게 만드는 유해환경은 적절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90년에 성과를 거두었던 ‘서강사랑’의 활성화와 영역확대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며 여학생들이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학내문화의 대표적인 술자리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학문화가 사라졌다” — 선배님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낭만이 있었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강조되는 사회. 대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학생회 행사나 세미나 후의 뒷풀이를 가도 선·후배나 친구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힘차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지지 않는 현실. 고래고래 유행가나 부르다가, 술주정을 나누고, 농담이나 하다가 집에 가는 술자리. 새로운 문화가 필요합니다. 즐겁게 부를 수 있는 노래, 놀이가 필요합니다. 한 번 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④교과목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대사회와 여성'을 3학점으로 강화하고 다양한 여성학 강의를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현대사회와 여성'이라는 강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시간씩의 강의인데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듯 방대한 내용에 비해 너무도 적은 시간이어서 깊이 있게 여성문제를 다루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일주일에 세시간으로 강화하고 이외에도 여성사, 한국 노동 여성의 현실, 여성문화 등 다양한 과목들이 교양과목이나 특강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⑤학내에 여학생모임이나 여성학회가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과학생회 실이나 단대학생회 실은 너무 좁기만 하고, 여학생휴게실에서 토론을 벌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강의실 부족) 현재 계획되고 있는 건물들이 완성되면 안정된 모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여협에서 강의실을 장기에약해 놓거나, 여협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⑥여학생휴게실을 깨끗하고 편안하게 만들겠습니다.

여학생휴게실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여학우라면 모두다 느끼시겠지만, 여학생휴게실 청소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저분하고 공기가 탁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돌아가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환풍시설을 달아서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3. 여성해방 · 민중해방의 하늘을 열자!

— 구체에서 추상으로
추상에서 구체로.
해방의 길을 찾아!

점점 더 거창해지고 있습니다. 여성해방 뿐만이 아니라 민중해방까지!

우리는 주장합니다.

여성해방은 민중해방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민중의 해방을 통해서만 여성해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감히 “여성해방의 함성으로 민중해방의 물결이 되어 평등한 새세상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야한 여자가 좋다고 외치는 교수님이나, 프리 섹스가 곧 성해방이라 생각하는 영화감독이나, 여자는 시집가서 잘사는게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여우같이 웃으며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이라고 말하는 여배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타도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불쌍할

뿐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원인을 제거하고 싶을 뿐입니다.

★ 상공부의 발표!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을 빌미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시각이 ‘보호’에서 평등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다. 여성근로자의 야간작업 및 시간외 근무규정은 삭제되어 마땅하다!

이는 여성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전제로 하면서 성차별을 척결하고자 하는 여성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전면전의 선언입니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지원대상이 월수입 4만 5천원 이하의 생활보호법 대상자나 의료부조자에 한정되어 대개의 근로여성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법률입니다. 더군다나 그간 택아정책의 부재를 메꾸어 온 빈민, 공단지역의 비영리 민간택아소를 불법화한 악법입니다. 이는 택아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택아운동을 말살하려는 책동입니다.

★ 여대생취업률 급격히 저하!

서강대 문과대여학생의 취업률은 31%, 이과대는 56.7%. (실질취업률이 아닌 취업률. 결혼, 진학을 포함)

공단지역에는 '주부근로자모집'이라는 현수막이 걸리는데, 학생의 취업률은 떨어저만 가고 여대생 취업차별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 시기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건, 상황들은 '우연한 만남'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학생들의 고통과 여성노동자들의 고통, 여성농민들의 고통은 그 뿌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고통과 남학생들이 고통은 그 뿌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남한의 신식민지국가 독점자본주의입니다.

충분한 부(富)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부가 독점자본가에 집중되어 있어 대다수의 민중들은 고통받을 수 밖에 없는 사회. 24초에 한대씩 그랜저가 쏟아져 나오지만 민중들은 교통지옥 지옥철에 시달려야 하는 사회. 누구는 자신의 자식을 버려놓고 파출부를 나가야

하지만 누구는 파출부를 두고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즐기는 사회. 이것이 바로 남한의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입니다.

하나의 문제, 욕설 하나, 취업문제... 이것은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학생취업률을 높이거나 하면 사회질서가, 제생산질서가 뒤바뀌어야 하는 사회 그러나 자체적으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회. 이것이 바로 남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여성문제의 해결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첫째, 여성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법적 제도적 불평등의 철폐!

둘째, 전면적으로 가사노동의 사회화 실시! (공동 탁아소등 가사노동 일체)

셋째, 사회내의 모든 이데올로기적 차별의 일소 (교육, 문화예술 등 전반에서의 가부장적 요소의 척결)

이는 단결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결을 기초로 현실을 극복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이를



기초로 실질적인 단결을 이루어 내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작은 실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은 실천을 기초로 커다란 실천을 만들어 내고 이를 기초로 작은 하나하나의 것을 개혁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현실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89년 초에 있었던 민자당의 창당으로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과 이를 위한 민중통제망의 강화, 민중운동을 가라앉히고 대북한 우위를 차지하려는 북방정책. 이것이 바로 현실의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조장하는 주범입니다. 이것을 분쇄하는 것이 우리의 투쟁의 내용입니다.

파쇼타도! 민중권력 수립!

당당한 평등의 새 세상을 노래하자!



①우리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는 파쇼정권의 민중통제망의 그물을 찢어 버리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군조직법·방송조직법의 개편 등으로 민중해방의 진군을 가로막는 노태우 정권의 민중통제망 강화구도는 분쇄되어야 합니다.

—군복무기간 연장, 신점연기 폐지가 남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듯, 취업차별철폐투쟁도 서강의 투쟁이 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학원사찰과 학우에 대한 수배, 구속, 대학언론탄압 등 학원을 영구히 권력과 자본의 손아귀에 두고 청년화도를 권력의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략시키려는 노태우 정권에 대한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합니다.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노태우 정권의 언론, 방송 장악음모에 맞서 투쟁해야 합니다.

②파시즘체제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해내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민중감시 폭압기구 안기부·보안사와, 민중의자유를 박탈하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③ 올바른 통일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현 시기 통일투쟁은 “오라! 가라! 전면개방 자유왕래”나 “통일논의 반대”가 아니라, 노태우정권의 통일방안이 반민중적인 것임을 폭로하고 “착취없는 통일세상”을 위해서 실현되는 민중의 통일대안을 제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내용으로 91년에는.

—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상호감군 군비축소”가 자리잡혀야 합니다.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석방”이 자리잡혀야 합니다.

— 자주적 교류투쟁은 “창구단일화 분쇄”의 내용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통일의 화신으로 등장한 노태우의 본질을 드러내고, 사천만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천만 민중을 통일의 주체로!